

Hot Issue :

IT-SoC Fair & IT-SoC 융합 컨퍼런스 2007

국내 유일 SoC/IP 전문 전시회인 IT-SoC Fair가 오는 25일 7번째 막을 올린다. 쉽지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국내 SoC기업들이 올린 알찬 성과를 돌아보고 국내외 기술 및 산업 전망을 통해 보다 큰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IT-SoC 융합 컨퍼런스, LG DAY,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해 IT-SoC Fair 2007이 참가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국내 유일의 SoC/IP 전문전시회 <IT-SoC Fair 2007>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IT-SoC협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IT-SoC Fair 2007이 오는 10월 25일~26일 양일간 COEX 태평양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Fabless 반도체업체들이 중심이 되는 국내 유일의 SoC(System on Chip)/ IP(Silicon Intellectual Property)전문 전시회다.

IT-SoC Fair 2007은 전시회뿐만 아니라 IT-SoC 융합 컨퍼런스, LG DAY, 비즈니스상담회, SoC Night, IT SoC 대상 시상식, Job Fair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한다. 특히 올해는 LG전자가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국내외 주요 SoC업체들과 협력을 모색한다. 또 중흥통신, 하이얼이동통신 등 다양한 중국기업들도 구매 상담에 적극 나서며 비즈니스 전시회, 기술 전시회, 전문 전시회를 표방하고 있는 IT-SoC Fair 2007을 더욱 빛낸다.

<IT-SoC Fair 2007>에서는 어떤 행사가 펼쳐질까?

이번 행사의 메인인 전시회에는 코아로직, 엠텍비전, 티엘아이,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에프씨아이, 넥스트칩 등 국내 IT SoC업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업체와 유블럭스, 실리콘하이브, 돌핀인터그레이션 등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등 각국의 SoC관련 업체가 참가하여 최신 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인다.

코아로직은 첨단 멀티미디어폰의 핵심 부품인 MAP(Multimedia Mobile Processor)와 메가픽셀급 이상 카메라폰에 사용되는 ISP(Image Signal Processor)를 비롯하여 MP3는 물론 디지털카메라와 게임, 네비게이션, PMP 등에 사용 가능한 다양한 기능의 모바일 디지털 컨슈머 제품을 전시한다. TLI는 타이밍 컨트롤러와 LCD 드라이버 IC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해외 참가 업체인 유블럭스의 GPS 칩셋과 돌핀 인터그레이션의 실리콘 IP와 EDA 솔루션 등도 눈길을 끈다.

전시장 내 마련된 세미나룸에서 펼쳐질 각 참가기업들의 기업소개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단순 기업 홍보를 넘어 국내외 최고 SoC 기업들의 최신 기술 동향과 향후 발전 방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를 중간 중간 펼쳐지며 관람객들을 모은다.

국내 최고 권위의 <IT-SoC 융합 컨퍼런스>

전시회 못지않게 많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IT-SoC 융합 컨퍼런스는 최고 권위의 SoC 및 융합부품 전문 컨퍼런스이다.

올해에는 'Digital Convergence & Fusion Technology' 라는 주제로 모두 9개 세션에서 심도 있는 주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진다. Silicon Image의 신현중 부사장이 "Can We Survive?"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게 되며 삼성전자 및 LG전자 각 산업체 임원급 연사들과 ETRI, 서울대, 고려대 등 연구소 및 학계 전문가들이 강연에 참여한다.

세션은 이동통신, 멀티미디어, u-Sensor, 무선데이터통신, 디지털 컨슈머, 테스트/패키지, 모바일 TV, 파운드리/IP, 산업분석 및 전망으로 총 9개로 구성되며 지금까지 SoC 산업 발전 동향 점검은 물론 향후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각계 최고의 전문가 37명의 명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LG DAY 등 다양한 부대행사

올해 처음 열리는 'LG DAY'와 참여 기업이 보다 다양해진 비즈니스상담회도 IT-SoC Fair 2007에서 주목받는 행사다. 우리나라 IT를 대표하는 기업과 외국 유명 업체들이 국내 SoC기업과 애타튀 손 잡기 위해 나서는 것이다.

우선 국내 대표 IT산업 리더인 LG전자의 참여가 눈에 띈다. LG전자는 'LG DAY'로 이름 붙여진 이번 행사를 위해 MC사업본부 연구소와 구매팀을 중심으로 10여명 규모의 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전시회 기간 동안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사전 신청 업체 및 참가업체들로부터 주요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부스도 둘러볼 예정이다.

해외 업체의 활발한 참여도 계속된다. 올해는 중흥통신, 하이얼이동통신, Longcheer, Huaqi 등 예년에 참가했던 대형 중국 업체는 물론 소니에릭슨 중국 사업본부, 비스톤, 심컴 등 세계적인 전자, 통신 기업들도 별도 상담 부스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구매 상담에 나선다.

이외에도 국내외 SoC 관련 기업, 연구소, 정부기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SoC Night 2007 행사와 2007 IT SoC 대상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한편 전시 기간 중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품 행사로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IT-SoC Fair 2007
- 장 소 : 서울 COEX 태평양홀, 장보고홀
- 일 시 : 2007년 10월 25일(목)~26일(금), 2일간
- 주 최 : 정보통신부
- 주 관 : IT-SoC협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후 원 : LG전자, 코아로직, 전자신문사, FSA

● 전시 품목

- Mobile Multimedia SoC
- Mobile TV Solution
- Display Driver IC
- RF IC
- GPS Chipset
- System-in-Package Solution
- IP(Intellectual Property)
- SoC Design Tool(EDA)

● 부대 행사

- IT-SoC 융합 컨퍼런스 2007
- LG DAY
- 비즈니스 상담회
- Job Fair
- SoC Night
- IT SoC 대상 시상식

● IT-SoC Fair 2007 참가업체



2007 IT SoC 대상

『대상』 수상기업 (주)엠텍비전



회사 소개 1999년에 설립된 팹리스 기업인 엠텍비전(www.mtekevion.co.kr)은 카메라 핵심부품인 카메라 컨트롤러 프로세서(CCP)를 독자 기술로 개발해 2004년 국내시장 1위를 달성하였으며, 2년 연속 초고속 성장기업으로 선정된 R&D 중심의 기업입니다. 엠텍비전의 주력제품은 2003년 국내 최초 독자기술로 개발, 1억 9천 만개 이상의 판매를 이룬 카메라폰 이미지 관련 기능을 통제하는 'CCP', 핸드폰 카메라의 여러 가지 제약을 극복하고 카메라폰을 디지털카메라 이상의 수준까지 발전시킨 'CSP'와 3D 그래픽, MPEG4, DMB, 화상통화 등의 첨단 멀티미디어 기능의 카메라폰을 지원하는 'MMP'입니다. 엠텍비전은 2002년 73억원의 매출에서 2003년 564억원, 2004년 1,681억원을 달성하면서 국내시장 1위를 달성하는 등, 비약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어내었으며, 2007년 6월에는 카메라 관련 IC를 전세계에 2억개 공급을 돌파하는 성과를 낳으며 국내최대의 팹리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 또한 2002년 50명, 2003년 75명, 2004년 159명, 2007년에는 250명까지 증가하여 매출의 성장과 함께 중소기업 고용증대효과와 한 축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구소 및, 미국, 독일, 중국 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상제품 소개 엠텍비전이 개발한 'MAPLE E Series'는 카메라폰, 캠코더폰, MP3폰 이후 차세대 휴대폰으로 각광 받고 있는 TV폰의 핵심 동영상 기술인 H.264, WMV 등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국내 지상파 DMB와 위성 DMB 뿐만 아니라 해외

DVB-H 방송까지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DMB 멀티미디어 칩입니다.

'MAPLE E'는 H.264뿐만 아니라 MPEG4, WMV, RV 등 모든 영상 파일

을 지원하기 때문에 컴퓨터 및 PMP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모든 영상을 휴대폰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DMB용 베이스밴드와의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용 인터페이스를 내장하고 있어, 고화질 DMB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Nand Flash, SD Card, USB 등 첨단 휴대폰 주변기기와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독립적으로 멀티미디어 기능 구현이 가능해 전력 소모 및 속도 문제를 개선했으며, PMP, PDA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로 적용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MAPLE E'는 자바 수행가능 외에도 MP3플레이어 기능, 3D게임, 800만화소급 카메라 기능을 갖추었으며, 기존 타 제품 대비 1/2 수준의 초저전력 시스템을 갖춰 멀티미디어폰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소비전력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모바일 환경에서 고기능의 뮤직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데 성공하여, 국내 뮤직폰 솔루션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으며, 이 제품이 탑재된 뮤직폰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모바일 멀티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2세대 AP(Array Processor) 핵심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국내 업체가 차세대 멀티미디어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크기 및 성능, 가격 면에서 전방위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뮤직폰 플랫폼 뿐만 아니라 향후 DMB 폰 핵심 부품으로서의 수입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EO 인터뷰

이성민 대표이사



1. 엠텍비전이 경쟁사에 비해 기술적 우위에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엠텍비전은 항상 좀 더 효율적으로 다양한 영상 솔루션을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하는 구조를 고민하며, 이의 개선에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T' 플랫폼의 개발로 카메라구조의 혁신을 이루어내었고, '휴대폰 카메라를 디지털카메라화' 하는데 주력하여온 결과, CSP 시장을 창출하고,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 멀티미디어의 전체 구조를 개선시키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엠텍비전이 우위에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구조적 아이디어, 즉 반도체를 시스템 상에 구현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세가지 제품군이 고루 성장하며, 각기 안정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상과 관련한 기술들을 골고루 확보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조합을 통해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제품 개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객사가 제시하는 제한된 정보에 회사의 운명을 맡기기에 엠텍비전의 규모는 많이 컸고, 더 정교해 졌습니다. 사업기획력, 제품개발계획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 로드맵이 안정적으로 개발, 발전하기 위해서는 end-product의 중심이 되는 기술의 발전 방향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당사의 제품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발전 방향에 맞추어 우리의 기술과 사업영역을 넓혀 나가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안정적 제품 개발 로드맵이 있어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엠텍비전이 집중하고 있는 Mobile Multimedia Platform 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 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모바일 멀티미디어 플랫폼(MMP: Mobile Multimedia Platform)은 최근 3G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인 VOD(Video On Demand)와 MOD(Music On Demand), 모바일 TV, 화상통화, 3D Game등을 휴대폰에서 구현시켜주는 멀티미디어 전용 프로세서로, High-end 제품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MP는 사람이 휴대하는 모바일 기기의 중심이 될 것이며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한 Feature Phone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usic 전용폰, 캠코더폰, 스마트폰, Mobile TV폰, 영상통화폰 등) 이러한 고성능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은 가전 등에 융합, 컨버전스를 이루어 낼 것으로 전망되며, MMP는 이러한 컨버전스 추세를 이어가가는 중심에 위치하며 그 대세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MMP는 엠텍비전이 미래 로봇산업을 지향하여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제품군인 'MVP(Machine Vision Platform)'에 최적화되도록 개발되어, MVP의 핵심 프로세서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로봇산업에 적용할 로봇아이(Robot Eye)의 핵심 플랫폼으로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4. 향후 SoC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국내 SoC 산업은 초기 성장기를 막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팹리스'로 대변되는 이 산업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팹리스 산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합니다. IT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홍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도체 설계 후, 제조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생산CAPA의 부족으로 해외(대만)업체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의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설비투자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SoC 업체는 특성상 국내 대기업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적지 않는데, 대기업들이, '국내 SoC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궁극적으로 그들도 경쟁력을 유지, 강화 해나갈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와 대응적인 파트너쉽 관계의 재정립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신기술상』 수상기업 (주)펜타마이크로



회사 소개 펜타마이크로(www.pentamicro.com)는 대표적인 보안감시 시스템인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핵심부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펜타마이크로는 2000년 5월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디지털 영상 압축/복원 및 영상처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한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차별화된 제품개발로 연평균 68%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달성해 왔습니다. 주요 제품군으로는 다채널 영상 입력을 시분할하여 압축 및 복원을 수행하는 MultiStream 제품군과 다채널의 영상 데이터를 분할해서 출력하는 기능 및 순차적인 녹화가 가능하도록 영상을 시간적으로 다중화 하여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영상처리 칩인 MultiQuad 제품군 그리고 저조도 환경에서 발생하는 영상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영상 노이즈 제거 칩인 NoiseMaster 제품군이 있습니다. 펜타마이크로는 영상·음성 압축 및 복원 분야를 핵심주력으로 그 동안 MPEG-1 코덱을 필두로 MPEG-2 인코더, MPEG-4 코덱 이후 현재 차세대 영상표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H.264와 관련된 코덱 칩을 출시하여 영상 압축 및 복원 분야에서 경쟁사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제품의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시스템의 응용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여 칩 출시와 함께 공급함으로써 시스템업체가 조기에 완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적인 프로세스를 확립했습니다.

수상제품 소개 다채널 H.264 코덱 칩은 현재 차세대 영상 표준인 H.264를 포함하여 MPEG-4/ MPEG-2/ MPEG-1, H.263, JPEG 등의 현존하는 대부분의 영상표준 방식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칩 내부에 호스트 프로세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CPU를 내장하였고 또한 외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어 여러 표준이 혼재하는 멀티미디어 시장에 폭 넓게 적용 가능한 동시에 시스템 측면에서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칩은 대표적인 감시보안 장비인 DVR(Digital Video Recorder) 시스템과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에 최적화 된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최신 차세대 영상압축 표준인 H.264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고화질 및 고압축률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VR 시장은 초기 PC 기반 형태의 시스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안정성이 보장되는 동시에 저가의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임베디드 타입의 DVR 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채널을 지원하면서 압축과 복원이 동시에 가능한 전용 코덱 칩에 대한 요구 및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칩은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지를 자동 판별하여 선별적으로 압축/저장하는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워터마크 기능이 탑재되어 저장된 영상의 변조 및 위조여부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법적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양산하고 있는 당사의 MPEG-4 코덱 칩의 주요 기능을 모두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영상의 전처리 및 후처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고화질/고기능 영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감시보안 장비의 필수 기능인 압축된 영상 데이터의 저장/재생/전송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USB, Ethernet, PCI 등 대부분의 외부 인터페이스 기능들을 내장하였으며, 별도의 호스트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도록 고성능 CPU 프로세서를 내장하여 본 칩만으로도 대부분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 시스템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인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EO 인터뷰

정세진 대표이사



1. 펜타마이크로가 경쟁사에 비해 기술적 우위에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펜타마이크로는 설립 후 현재까지 시스템 보안솔루션에 대한 경험과 영상 압축/복원이라는 Multimedia 핵심기술에서의 축적된 Know-how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요구에 부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해 왔습니다. 특히 영상 압축 및 복원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기술표준 동향에 맞추어 현재 차세대 영상 표준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H.264 표준방식까지 만족하는 제품을 개발완료함에 따라 동 분야에서 경쟁사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제품의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2. 제품 개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전자부품업체가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운 점 외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보안시스템의 시장은 장비특성상 안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완제품에 대한 검증작업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적기에 시스템에 최적화된 부품의 개발과 다양한 시스템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요구를 선별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면서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 제품에 비해 까다롭고 높은 기술수준을 만족하는 보안시스템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발의 융이성과 개발기간

을 단축할 수 있는 솔루션도 함께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3. 현재 펜타마이크로가 집중하고 있는 다채널 영상/음성 코덱 칩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 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DVR 시스템의 연평균 성장률은 15~20%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핸드폰, 컴퓨터, 디지털 가전으로 대변되는 소비재 IT시장에 비하면 협소한 시장으로 그와 관련된 Multimedia 부분에서의 칩 시장도 협소한 틈새시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안시장과는 별도로 시장규모도 크고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신정보가전시장 분야에 필요한 부품 공급자로서 우선 IPTV STB(Set-Top Box)에 최적화된 H.264 SoC를 기획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에 펜타마이크로의 제품은 보안시장에 필요한 핵심부품에서 그동안 보안시장에서의 기술과 Know-how를 기반으로한 컨슈머 Multimedia 제품 솔루션 공급자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 향후 SoC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내 SoC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분야와 연계한 세계 선도적인 SoC솔루션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 갖춘 SoC 전문인력 집중양성과 SoC 산업지원 인프라 확충 등 SoC 관련 기업 간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펜타마이크로는 국내·외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다각화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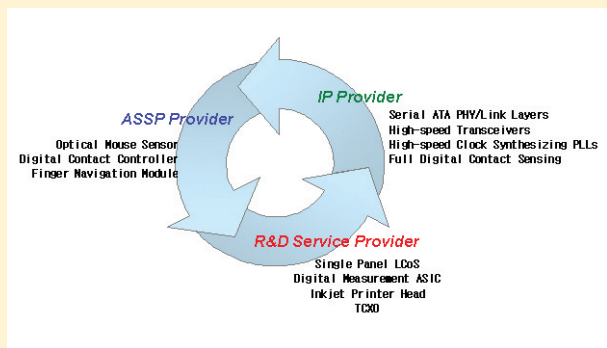


『Best Product상』 수상기업 (주)에트랩



회사 소개 2000년 7월에 설립된 (주)에트랩(www.atlab.co.kr)은 mixed-signal SoC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반도체 회사입니다. 설계, 영업, 생산, 서비스의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인 전문성과 실제 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system LSI 제품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가 그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ASSP(특정용도표준제품) 사업으로 광마우스 센서, 터치센서인 DCC(Digital Contact Controller)와 초고속 멀티미디어 송수신 칩인 GMDX(Gigabit Multimedia Data eXpress)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IP 사업과 R&D 서비스 사업이 있으며 DCC IP는 세계 5대 반도체 회사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대만의 MosArt에게 라이선스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에트랩은 자사의 모든 기술을 특허화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에트랩의 주력제품인 광마우스 센서와 터치센서인 DCC에 관해 출원한 특허는 각각 70여건과 20여건이며 이외에 다른 제품에 대한 특허도 다수가 있어 자사의 차별화된 기술을 특허를 통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수상제품 소개 터치센서인 DCC는 종래의 Analog회로가 필수적인 터치센서 신호처리를 100%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제품에 비해 외부 추가 부품이 간단하며 10분의 1 이하의 저 전력 소모와 20배 이상의 빠른 응답 속도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외부의 RF



noise를 비롯한 소음에도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모바일 기기와 가전제품의 입력장치에 폭 넓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DCC는 2005년에 개발되어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Design-in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미주, 유럽 등 판매지역이 팽창되어 나가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Digital 회로만으로 모든 동작을 하여, mixed-signal 방식인 여타의 해외 유명 반도체 업체들의 터치센서 제품과 비교해 볼 때 기술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ST마이크로를 비롯한 세계적인 업체들에게 IP 라이선스를 통해 기술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CEO 인터뷰

이방원 대표이사



1. 에트랩이 경쟁사에 비해 기술적 우위에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에트랩의 DCC는 100% digital 회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른 모든 경쟁사들은 analog 회로를 capacitance를 측정하고 판단을 digital 회로로 합니다. 따라서, 에트랩의 기술은 digital회로가 가진 모든 장점이 그대로 있습니다. 소모 전력이 1/10이고 동작 속도는 10배 빠릅니다. 또한, 주변 noise에 강하고

foundry업체에 종속성이 없습니다. 또한, 더 좋은 공정을 사용하면 die크기가 비례적으로 줄어들고 성능은 비례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런 100% digital 회로로 구성된 것은 nano meter 공정을 사용하는 SoC에 집적화 될 수 있습니다.

2. 제품 개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시제품은 2004년 10월에 만들고도 Apple iPod이 touch sensor를 mp3 player에 적용하기 전까지는 touch sensor를 채용하는 고객을 찾기 못했습니다. 참고로 초기 Apple iPod에는 Cypress Semiconductor사의 CapSensor가 적용되었습니다. 제품을 먼저 개발하고도 그 제품을 채택하는 고객을 찾기

못한 것입니다. 일단 시장 적용에 늦게 되어, 후발 주자로서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3. 현재 에트랩이 집중하고 있는 Digital Contact Controller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 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에트랩의 DCC기술은 현재는 touch button에 응용되는 DigiSensor 제품군 (이것을 STMicroelectronics는 STouch라고 부름)에 국한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2차원 touch screen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또한, DCC기술의 우수한 감도를 바탕으로 MEMS 제품에 sensor input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DCC는 구조를 delay converter에 적용되어 nano meter 공정에 필요한 analog-to-digital converter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것은 multi-level flash memory를 구현하는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향후 SoC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SoC는 System을 반도체로 구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System을 만드는 산업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제품 기획과 고객 확보 차원에서 system업체와 연결을 하고, 다양한 IP들 (soft IP, hard IP, firm IP)을 만드는 IP provider와 network을, 그리고 foundry업체와 EDA 및 design tool 연관이 필요합니다.

『Best Product상』 수상기업 (주)엠트론



회사 소개 빛보다 빠른 속도를 꿈꾸는 차세대 저장장치 SSD, 그 중심에 엠트론이 있다! 엠트론(www.mtron.net)은 2005년 10월에 설립된 플래시 메모리 기반 SSD를 제조공급하는 전문기업입니다.

SSD(Solid State Drive)는 느리고 고장이 잦은 하드디스크의 단점을 극복한 저장장치로, 노트북에 장착하면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충격이나 진동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SSD는 반도체 시장을 한번 더 성장시켜 줄 차세대 핫 아이템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SSD 시장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엠트론은 5년 여의 연구개발 끝에 세계 톱 클래스 성능을 갖춘 SSD를 개발, 세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엠트론은 고성능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 기술력을 자체 개발해 국내 중소기업으로는 최초로 SSD 설계의 원천기술을 확보한 회사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엠트론처럼 자체 컨트롤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SSD 제조업체는 전세계적으로 10개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엠트론 SSD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상제품 소개 엠트론 SSD는 첫째, 64개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칩을 하나의 컨트롤러로 제어하는 원칩솔루션(single chip solution) 방식으로 부품 수를 최소화하고 성능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최대 읽기·쓰기 속도가 100·80MB/s의 수치를 보이며 임의 접근 시간이 0.1msec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일반적으로 플래시 메모리의 쓰고 지우기 횟수는 10만 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엠트론 SSD는 Wear-leveling 알고리즘, 7bit ECC (Error Correction Code) 및 bad block management의 기술력으로제품의 수명 기간을 140년 이상으로 연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다수개의 플래시 메모리를 구성한 하드디스크 특허 출원을 비롯해 앞으로 고성능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 기술을 바탕으로 캠코더, DVR 등 가전제품에서부터 PCI Express Card에 이르는 다양한 응용 분야를 추가로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다양한 수요를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엠트론은 용량별로는 16, 32, 64, 128GB, 폼팩터별로는 3.5, 2.5인치 라인업이 구축된상태입니다.

CEO 인터뷰

전형관 대표이사



1. 엠트론이 경쟁사에 비해 기술적 우위에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엠트론은 기술 집약적 벤처 회사로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자체 컨트롤러 기술을 보유한 앞선 기업입니다. 엠트론 SSD의 기술적 우위는 여러 가지 손꼽을 수 있지만 그 중 성능의 우수성이 단연 앞섭니다. 타사의 2~3배 가량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 차세대 컨트롤러 개발에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2. 제품 개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모든 개발 과정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엠트론 SSD개발 과정 중 어려운 점이라 하면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 수급과 연구 인력의 보충이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유치 할 수 있었고 산학협력 구도로 필요한 연구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품의 코어인 컨트롤러 개발이 아닌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기구 설계 개발 부분에서의 부족한 연구 인력 수급에 미흡한 점이 있어 충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엠트론이 집중하고 있는 Flash Memory SSD분야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 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리라 판단됩니다. 먼저 모바일 시장에서 성능과 안정성, 저전력 기능 등의 우월성을 앞세워 기존 하드 디스크를 대체해 나갈 것이고 향후 기업 서버 및 스토리지 시장으로 확대해 나아가 하드 디스크를 2차 또는 3차 저장장치로 밀어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Flash Memory SSD에 대한 협회 및 학회가 생겨나며 새로운 표준과 적용시장이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Flash Memory의 용량 증가와 가격의 하락, 물리적 제약이 적은 관계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저변 확대의 핵심은 Flash Memory 컨트롤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SoC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Soc 산업은 지금껏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를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Soc 산업의 Cluster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학회와 기업, 국내외와 국외의 교류 활성화를 정부의 리더쉽 하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G DAY & 비즈니스 상담회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비즈니스 상담회는 처음으로 참가하는 국내 및 해외 대형업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 국내 유일 SoC/IP 전문 전시회 라를 IT-SoC Fair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높아졌음은 물론, 국내 SoC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하는 청신호다.

이번 상담회는 LG DAY와 중국 시스템업체초청 1:1 비즈니스 상담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LG DAY는 행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대표IT기업인 LG전자가 참여해 14개 우수 SoC 기업과 구매상담을 진행한다. LG전자는 이번 행사를 위해 MC사업본부 연구소와 구매팀 1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했을 정도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상담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시스템업체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중흥통신과 Haier이동통신, Huaqi 등 중국 대표 IT업체에서 총경리 또는 연구, 구매 부서의 최고 책임자들을 대거 참석한다. 또 소니에릭슨 중국 사업본부, 비스트온 등 세

계적인 IT 기업들의 임원진도 새로 합류했다. (표 참조) 또한 중국 내 디자인하우스 업계 1, 2위 업체인 Longcheer와 Simcom 등이 참여하는데, 이 업체들은 단순한 용역업체가 아니라 제품 자체를 디자인하여 제조업체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다. 대형 디자인 하우스는 중소 제조업체보다 부품 구매력 면에서 우수하다.

이들 업체는 이번 비즈니스상담회를 통하여 한국의 최신부품 발굴과 차기 신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사개요

- 행사명 : LG DAY & 비즈니스 상담회
- 일시 : 10월 25일~26일(IT-SoC Fair 2007 행사기간)
- 장소 : 서울 삼성동 COEX 장보고홀 332호, 334호
- 주최 : 정보통신부
- 주관 : IT-SoC협회

•초청 업체 명단

No.	회사명	영문이름	직위	관심품목	생산품목
1	중흥통신	Ji XiPing	과장	휴대전화부품 및 DMB부품	휴대전화, 통신설비 등
		He Hao	기술총엔지니어		
2	Ericsson(중국)	Yang Ke	경리	통신관련 부품	통신설비 등
3	Sony Ericsson (중국)	Chen Feng	고급엔지니어	휴대전화부품 및 DMB부품	휴대전화
		Li Hui	프로젝트경리		
4	Huaqi	Ren Xuening	총경리	MP3, PMP, DMB관련 부품	MP3, PMP, DMB
5	Hisence	Zhang Daxu	TDSCDMA 하드웨어총감, 고급엔지니어	소비가전 및 이동단말 부품	소비가전, 이동단말 등
6	Haier 이동통신	Guo Junmin	연구개발총감	휴대폰부품 및 DMB부품	휴대전화
7	Yanfeng Visteon	Li Xiangxin	Supervisor	영상/음성 및 DMB관련 부품	차량용 부품
		He Zhongyi	주임엔지니어		
8	Capitel	Kang Feng	업무총감	휴대폰부품 및 DMB부품	휴대전화, 통신설비 등
		Zhang Yongcheng	총경리비서		
9	UT Starcom	Wu Xiaohua	Global Procurement 총감	휴대전화부품	통신 솔루션 및 이동단말
10	Longcheer	Li Dexing	마케팅총감	휴대전화부품	디자인하우스
11	Sim Technology	Cai Chunfu	경리	휴대전화부품	디자인하우스
		Du Guobin	경리		
12	Timitech	Shen HongBing	CEO	DMB기술 및 부품	광대역 전송기술 및 관련 솔루션/시스템개발
		LI Qun	운영부총재		
13	Hisilicon	Zhou Chen	사업개발경리	휴대전화부품	네트워크, 이동단말 관련 칩 및 솔루션
14	Nollec Wireless CO,LTD	Yue Wenjun	VP/Operation	휴대전화부품	디자인하우스
15	Qinghuaziguang	chen zhaochun	Vice GM (Chief Engineer)	휴대전화부품	디자인하우스

ZTE中兴 中兴通信

중흥통신(ZTE Corporation)은 중국에서 가장 큰 상장 텔레콤 제조사로 무선 솔루션 공급자이다. 1985에 창립한 ZTE Corporation은 1997년 이래 선전증권 거래소에 A급 주식회사로 상장되어 왔다. ZTE Corporation은 중국의 텔레콤 장비 제조업의 개척자이며 텔레콤 장비, 이동 터미널 및 관련 서비스의 종합 공급자이며 무선, 네트워크, 및 터미널(모바일폰)의 세 가지 제품 시리즈와 함께 ZTE는 전 세계 고객에게 다양한 통합 텔레콤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국제 텔레콤 운용서비스 시장에 참여해왔다.

무선 제품분야에서 ZTE는 CDMA, GSM 및 PHS 제품의 토털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2004년 말까지 ZTE CDMA 장비의 무선 역량은 2천만 라인을 초과했으며 이에 따라 ZTE는 중국 최대의 텔레콤 장비 수출업체가 되었다.

모바일폰은 ZTE의 업무의 또 다른 핵심으로 현재 GSM, CDMA 및 PHS 등 세 시스템의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 유일의 모바일폰 제조업체이다. 모바일폰 R&D로 주요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ZTE는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회로, 핵심 칩, 및 전체 디자인 및 통합에 관한 개별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ZTE는 WCDMA, CDMA, NGN, GSM, 스위칭, 접속, 및 광전송 등 ZTE의 다양한 제품으로 전 세계 60여개 국에 진입했다.

또한 ZTE는 연간 총매출의 약 10%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ZTE는 현재 21,000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중 70%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ZTE는 가장 건설한 발전으로 중국 텔레콤 제조업체중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이다. ZTE는 중국의 상장 회사 중 '상위 10개 상장기업'으로 인정 받았으며 '중국 증권시장 및 아시아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상위50개 상장회사'에 연속해서 4년간 선정되었다.

ERICSSON 爱立信 Ericsson (중국지사)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은 1876년에 설립되었으며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해 있다. 전화기, 전화교환기를 생산하던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Ericsson의 사업은 세계 140여 개 국가로 확산되었으며 End-to-End 전면 통신 솔루션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선두 공급업체다.

현재 Ericsson의 사업 시스템에는 통신망 시스템, 전문 전신 서비스, 기술 위탁 대행, 기업 시스템 및 이동 단말기 사업이 포함된다. (소니 에릭슨 이동 통신 50% 주식 보유)

Ericsson은 세계 최대의 이동 시스템 공급업체로 세계의 모든 주요 이동 통신 표준을 위해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40%의 이동 통신은 에릭슨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Ericsson은 전세계 GSM/GPRS/EDGE 시장의 35%, WCDMA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IMS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전문 통신 서비스 기업이기도 하다.

Sony Ericsson Sony Ericsson (중국지사)

Sony Ericsson Mobile Communications은 다기능 폰, 액세서리, PC 카드를 비롯한 모바일 멀티미디어 장치의 세계적 공급업체이다. 제품에는 최고의 기술과 모바일 이미징, 음악, 통신,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이 결합되어 있다. 그 결과 Sony Ericsson은 모바일 사업자를 위해 유력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최종 사용자의 사랑을 받는 참신한 제품을 생산하는 매력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Sony Ericsson은 2001년에 최고의 통신업체인 Ericsson과 소비자 전자 제품의 최강 업체인 Sony Corporation에 의해 설립되었다. 회사는 Ericsson과 Sony가 동등하게 소유하며 2002년 3월에 최초의 합작 제품을 발표했다. Sony Ericsson의 제품은 보편적인 매력과 더불어 이미징, 음악, 디자인, 애플

리케이션 등 주요 분야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회사는 2G 및 3G 플랫폼과 같은 주요 모바일 통신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제품을 출시하는 한편 엔트리 레벨 시장의 오퍼링도 강화했다.

신제품이 사용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기존 제품들이 계속해서 호평을 받는 가운데 오늘날 Sony Ericsson은 디자인과 기술혁신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T610과 이후 세대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기능과 다방향 카메라를 완비하고 보더폰(Vodafone) 용으로 제작된 다기능 폰 V800은 GSM Association에 의해 2004년 최고의 3G 핸드셋으로 선정되었고, K750i는 TIPA Award 2005/2006에서 유럽의 31대 사진/영상 잡지에 의해 품질, 성능,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부문 '최고의 모바일 이미징 장치'로 선정되었다. 2007년 2월에 GSM Association은 Sony Ericsson의 K800 '사이버샷' 폰에 '최고의 3GSM 모바일 핸드셋' 상을 수여했다

AIGO 爱国者 Huaqi Information Digital Technology

1993년에 설립된 Beijing Huaqi Information Digital Technology (北京华旗资讯科技发展有限公司)는 베이징 중관촌(中关村)의 중심부에 본사를 둔 하이테크 회사이다. Huaqi는 휴대용 저장장치, 디지털 제품, 자체조립(self-assembling) 제품 등의 분야를 선도하는 중국 내 제조업체로서 항상 중국 IT 산업의 발전을 자사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Huaqi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의 R&D, 판촉 및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휴대용 저장장치, 모니터, 디지털 제품, 컴퓨터 케이스, 광자기 제품 등을 비롯한 AIGO시리즈 제품은 최고급품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소비자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Huaqi의 매출 수익은 1993년 설립 이래 10년 넘게 60%씩 꾸준한 증가를 유지해 왔다. 본사의 제품은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지역에 수출되고 있다. AIGO 플래시메모리 시리즈는 지난 5년간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중국 시장을 지배해 왔다. AIGO MP3 플레이어 시리즈는 출시된 지 불과 1년 만에 수많은 브랜드를 제치고 매출액 1위를 기록했으며 줄곧 수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AIGO MP4는 중국 시장 최고의 브랜드가 되었다. AIGO 모니터와 주변장치는 국내 시장에서 수위를 차지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컴퓨터 케이스는 다년간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Huaqi는 중국 IT 산업에서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Hisense 海信 HiSense

HiSense Group (海信集团)은 초대형 전자정보산업 그룹으로 1969년에 설립됐으며 가전, 통신, 정보, 부동산, 서비스 등의 폭넓은 범위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HiSense는 최초로 국내에서 가전, 통신, 정보가 주도하는 3C 산업 구조를 구축했다. 주력 제품으로는 TV, 에어컨, 냉장고, 냉동기, 세탁기, 산업용 에어컨 시스템 컴퓨터, 이동 전화, S/W 개발, 네트워크 설비 등이 있다. 이미 연간 생산 능력은 컬러TV 1,610만 대, 에어컨 900만 대, 냉장고 1,000만 대, 냉동기 70만 대, 휴대폰 470만 대에 달한다. 2006년 HiSense는 매출 수입 435억 위안을 기록하며 중국 전자 정보 100대 기업 중 선두를 차지했다.

현재, KELON을 합병하면서 HiSense는 이미 HiSense 전기(600060) 및 KELON 전기(000921) 두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두 기업은 상하이, 선전, 홍콩 세 지역에 상장돼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HiSense, Kelon, Ronshen 등 3개의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HiSense 전기 주식유한공사는 2001년 제1회 '전국 품질 관리상'을 획득했고 HiSense TV, HiSense 에어컨, HiSense 컴퓨터, HiSense 휴대폰, Kelon 에어컨, Ronshen 냉장고는 모두 중국 대표 브랜드로 손꼽히고 있으며 HiSense TV, HiSense 에어컨, HiSense 컴퓨터, HiSense 냉장고는 모두 국가 검사 면제

제품으로 불리고 있다. HiSense TV는 중국 최초로 국가 수출 검사 면제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다.

또한 HiSense는 국가급 기업 기술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HiSense가 가지고 있는 고효율 기술 혁신 시스템은 HiSense 기술이 오랫동안 국내 동종 업계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HiSense는 2005년 6월, 중국 최초의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디지털 비디오 미디어 처리 칩을 개발하여 칩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있다.

현재, HiSense는 남아프리카, 헝가리, 프랑스 등지에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지에 판매기구를 설립하고 있으며 유럽, 미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100여 개 국가와 지역까지 판매망을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Haier Haier 이동통신

칭다오하이얼통신유한공사(青島海爾通訊有限公司)는 칭다오시 과학기술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이 50,000평에 이른다. 세계 제1의 핸드폰 STM생산설비와 테스트 장비를 갖추고 있어 GSM과 CDMA를 동시에 생산 가능하며, 년 1,5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 하이얼통신은 패셔너블 테크놀러지를 기본 개념으로 무선통신기술과 패션을 접목시킨 핸드폰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10분 만족 서비스"라는 기능으로 "CCID 중국 핸드폰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1위에 랭크 되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하이얼통신은 하이얼의 우수한 기술력, 브랜드 가치화, 서비스 만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더욱 특색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의 기호를 이끌어 갈 것이다.

Yanfeng Visteon

Yanfeng Visteon (延鋒偉世通汽車飾件係統有限公司)은 上海汽車集團股份有限公司(Shang-hai Automotive Industry Corporation(Group)와 미국 VISTEON사가 50%씩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중미합자기업으로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투자총액은 2억2300만 달러이다. 본사는 상하이 차오허징(漕河涇)개발구에 위치해 있으며, 상하이 안팅(安亭)에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Yanfeng Visteon은 두 개의 시급(市級) 기술센터와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의 내·외장 시스템, 시트 시스템, 안전시스템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의 심의를 통과한 자동차 내·외장 제품 실험실을 구축하고 있다. 회사는 시스템 설계와 모듈화 제품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내장 시스템(운전석 모듈, 도어 패널과 도어 필라, 현가장치 포함), 외장 시스템(범퍼 도색과 문외 장식품 도색 포함), 시트 시스템, 안전 시스템 및 자동차 전자 등이 있다.

2006년도 회사의 판매액은 RMB 106억 위안이며, 수출액은 USD 2억700만 달러에 달했다. 2005년도에는 중국 자동차 부품 100대 기업 중 5위를 차지했다. 2004년도에는 중국 공업 500대 기업 중 184위를 차지했으며, 2005년도에 회사는 상하이의 판매수입 500대 공업 기업 중 93위를 차지했으며, 자회사인 上海延鋒江森座椅有限公司는 43위를 차지했다.

PUTIAN Capitel

PUTIAN Capitel (普天首信集團)은 중국보천정보산업주식회사(中國普天信息產業股份有限公司, CHINA PUTIAN COMPANY LIMITED)의 근간이 되는 기업으로서 국가지식재산권법에 의해 전국 최초의 특허 시범기업으로 확정되었고,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의해 국가급 기술 센터로 확정되었으며, GB/T 19001-2000 품질관리시스템, GB/T 24001-2004 환경관리시스템, GB/T 28001-

2001 직업건강안전관리시스템 논증을 통과했다. 본사는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다.

PUTIAN Capitel 은 1906년에 설립된 이래 '중국 제일의 통신 제조업체'로 군림해왔다. 1958년부터는 마이크로웨이브 설비를 연구제작 하였으며 1982년에는 이동통신 제품의 시험 제작에 성공했다. 1986년에는 고체화된 34MB/S 설비를 이용하여 중국 최초의 디지털 마이크로파 회로를 제작했다. 오늘날 PUTIAN Capitel 은 통신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는 중국 최대의 국가 하이테크 기업 중의 하나가 되었다.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통신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보천수신그룹은 과다 성 있는 개혁 및 창조와 합자·합작을 통해 Nokia, Ericsson 등과 같은 세계적 다국적기업과 합작 관계를 구축하여 기업이 쾌속 발전함으로써 중국 전자 100대 기업 중의 하나가 되었다.

UT Starcom

UT Starcom은 통신 분야의 선진 기술 및 제품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는 글로벌 하이테크 통신 기업이다. 본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으며, 총 10여 개의 UT Starcom 연구 개발 센터가 미국, 중국, 인도, 한국 및 캐나다에 분포되어 있다. 아울러 미주, 유럽, 일본, 인도 및 동남아시아 등지에 수 많은 지사가 분포되어 있다. UT Starcom의 제품과 서비스는 이미 전 세계 3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진출하였으며 경쟁력있는 제품과 전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계 상위 20개 전기통신기업 중 17개 기업과 그 외 300여 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제품

- 무선 네트워크 솔루션
- 광대역 솔루션
 - RollingStream IPTV 통합 솔루션 - 광대역 인터페이스 시스템
 - 차세대 광 네트워크 솔루션
- 휴대폰 및 단말기 제품
- mSwitch 차세대 네트워크(NGN) 솔루션

Longcheer

Longcheer Group은 핸드폰의 연구개발과 설계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하이테크 기업으로서, 700여명의 연구개발 기술자가 포함된 1,000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3대 핸드폰 설계회사 중의 하나이다. Longcheer Group은 2002년 7월에 설립되어 3년 내에 싱가포르 증권거래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으며, Longcheer Group이 2005년 12월까지 시장에서 모집한 자금은 약 1억 위안에 달한다. Longcheer는 중국의 3대 핸드폰 설계 솔루션 제공업체 중의 하나이자 중국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50대 하이테크 기업 중의 하나이다. 2005년에는 중국 하이테크, 고성장 기업 500강 중 14위에 랭크 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성장 기업 5000강 중 59위에 랭크 되었다.

Longcheer Group은 고객의 원가절감, 시장 진입 시간 단축, Win-Win 획득을 전력 지원한다는 경영이념으로 GSM/GPRS/3G 이동단말기의 연구개발에 진력하여 고객에게 완전한 이동단말기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구개발에는 2.5G에서 3G에 이르는 제반 핸드 디바이스가 포함되며, 또한 사진 촬영, MMS, JAVA, WAP, MP3, MPEG4, MDTV 등과 같은 창조적 기술 영역에서 탁월한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설계의 개념으로부터 제품의 구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설계 방안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외부설비가 포함된다. 또한 당사는 전신(통신류) 고객에게 CKD(Complete Knocked Down)와 SKD(Semi Knocked Down) 설계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다.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와 생산의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품질제어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Sim Technology

Sim Technology (晨訊科技集團有限公司)은 선도적 핸드폰 및 지능형 휴대단말기 개발업체이자 무선통신모듈 및 응용 솔루션 제공업체로, 홍콩증권거래소(Hong Kong stock exchange)에 상장돼 있다.

Sim Technology 산하의 핸드폰 연구개발 회사인 上海希姆通(Shanghai Simcom), 上海思必得(Shanghai Speedcomm), 上海基信康(Shanghai Basecom)은 주로 핸드폰의 설계와 개발에 종사하고 있다. 그룹은 일류의 연구개발팀을 보유하고 핸드폰의 연구개발 및 이동통신 핵심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기능과 참신한 디자인을 갖춘 200종 이상의 핸드폰을 설계해 내고 있다. 이는 국내 주요 핸드폰 브랜드 업체의 환영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유명한 다국적 핸드폰 제조업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자회사인 上海芯訊通(SIMCom Wireless Solutions)은 GPRS/EDGE, WCDMA/HSDPA, TD-SCDMA 등의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통신모듈 및 그 응용 솔루션 제공을 주 영업으로 하고 있다. 2006년의 전 세계 판매량 통계에 의하면, 上海芯訊通의 시장 점유율은 중국 1위, 세계 3위를 차지했다. 또한 Sim Technology 는 많은 자금과 연구개발 자원을 3G/3.5G 등의 신기술 설계와 개발에 투입했다. 이에는 TD-SCDMA, WCDMA/HSDPA, WiFi 듀얼모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룹은 적극적으로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핸드폰 및 지능형 휴대단말기 분야의 세계적 제공업체가 될 포부를 지니고 있다.

Sim Technology는 2005년과 2006년에 델로이트(Deloitte)로부터 '델로이트 하이테크, 고성장 중국 50대' 기업으로 평가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홍콩에서 상장한 후 곧 MSCI 홍콩 소기업 지수에 편입되었다.

TiMi Technologies

TiMi Technologies(北京泰世世紀科技有限公司)는 2003년 2월 중관촌과학 산업단지에서 설립됐으며,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 방송과학연구원 이 지주인 하이테크 기업이다. TiMi Technologies는 선진적 무선 광대역 전송 기술과 시스템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술팀의 무선 광대역 통신 영역에서의 풍부한 이론과 실전 경험을 토대로 TiMi Technologies는 완전한 자체 지식재산권을 지닌 디지털 TV 전송 시스템 구조 설계를 제시했으며, 아울러 고도로 구조화된 LDPC 코덱 알고리즘과 OFDM MCM(Multi-Carrier Modulation) 기술의 Time-frequency 2D 계획, 균형, 고속동기 등 기술 방면에서 여러 항목의 창조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기초로 TiMi Technologies는 국제 선진 수준의 TiMi(Terrestrial Interactive Multiservice Infrastructure) 지상 디지털 TV 전송 시스템과 STiMi(Satellite & Terrestrial Interactive Multiservice Infrastructure) 위성, 지상 인터랙티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전송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중국 디지털 TV 및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현재 TiMi Technologies의 sTiMi 기술은 이미 국가 방송영화 텔레비전 총국에 의해 중국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CMMB 기술표준 중의 채널전송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향후 중국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영역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예정이다.

Hisilicon

Shenzhen Hisilicon Technologies (海思半導體有限公司)는 2004년 10월 설립되었으며, 전신은 1991년에 설립된 華爲集成電路設計中心이다. Hisilicon의 본사는 선전(深圳)에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미국 실리콘밸리, 스위덴에 설계 부문을 두고 있다. 2006년 총 종업수는 1400 여 명으로 그 중 67%가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 인력이다.

Hisilicon 은 통신 네트워크, 무선 단말기, 디지털 매체 등의 칩 및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통신 네트워크 영역에서 하드 링크(hard-link), Optical Network, 무선네트워크, 데이터통신, 네트워크 안전 시리즈화 칩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무선 단말기 영역에서는 WCDMA 핸드폰 칩 및 솔루션을 출시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 영역에서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칩 및 솔루션, 영상전화 칩 및 솔루션, DVB 칩 및 솔루션, IPTV 칩 및 솔루션, 디지털TV 칩 및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Hisilicon 은 다년간의 기술 축적을 통해 세계 일류의 IC 설계와 검증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선진적 EDA 설계 플랫폼과 개발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100여 항목에서 지적재산권을 지닌 칩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400여 개의 특허를 출원했다.

NOLLEC

NOLLEC Wireless Co. LTD는 2007년 설립된 신생 회사로 CELLON이 이 회사의 전신이다. NOLLEC은 핸드폰 디자인 및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공급해온 업체로 전 세계 핸드폰 OEM 및 소매업체에 최종 플랫폼과 완전히 아웃소싱된 솔루션을 공급한다. 총 종업원 수는 140명이며 이중 80%가 설계 엔지니어로 구성돼 있다. 유럽과 아시아에 디자인 시설을 갖춘 셀론은 가장 중요한 독립 R&D,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및 차세대 모듈 및 플랫폼을 위한 시스템 통합 능력을 갖추고 있다. NOLLEC은 전 세계 R&D 및 디자인 능력을 활용해서 주요 고객이 최종 개발되고 시험되고 구현되는 최첨단 기술을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 입증된 솔루션: NOLLEC은 자체의 솔루션을 시험하고 인증할 수 있는 유일한 독립 디자인하우스이다. 그 결과로 시장에 더 빨리 제품을 내놓을 수 있으며 업계에서 가장 적은 필드 리턴율(field return rates)을 가지고 있다.
- * 빠른 제품 디자인: 생산 가능하도록 디자인하고 자체 시설을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 및 시험 함으로써 대량 생산 및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을 66%이상 줄여준다.
- * 시장 경험: NOLLEC은 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출시 제품을 디자인한 경험이 있다. 글로벌 경험과 능력으로 인해 NOLLEC은 거대 다국적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 * 절감된 비용: 자체명세(BOM)를 엄격히 관리하고 모듈러 디자인 접근방식으로 NOLLEC은 상당한 비용 절감을 이루어낼 수 있다. NOLLEC의 솔루션은 업계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 중 하나이다.

Tsinghua Unisplendour Microelectronics System

1999년 9월에 설립된 Beijing Tsinghua Unisplendour Microelectronics System Co., Ltd.(TUMS)는 Tsinghua Unisplendour Group과 Tsinghua Samsung Software House 간의 합작회사이다. TUMS는 전자 및 IT 제품과 관련 ASIC의 개발, 제조 및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으며 베이징 과학 기술부의 인증을 받은 하이테크 기업이다. 또한 베이징 경제위원회와 베이징 IC 협회(Beijing IC Guild)의 인증을 받은 최초의 IC 설계 법인 중 하나이다.

TUMS 는 소비자전 및 관련 ASIC 설계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 기업들과 긴밀한 비즈니스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TUMS 제품은 컬러 TV, 모니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전자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TUMS는 ASIC 설계와 이를 응용한 음성 부호화 및 음성 인식의 신호 처리 제품을 개발하여 관련 제품이 채용되고 있고, 또한 바이 인터페이스(bi-interface) IC 카드 및 카드 리더의 설계를 완료하여 출시 예정이다.

주요 제품:

1. 소비자 전자제품을 위한 ASIC
2. 음성 부호화 및 음성 인식을 위한 ASIC
3. 바이 인터페이스(bi-interface) IC 카드 및 카드 리더

IT-SoC 융합 컨퍼런스 2007

최고 권위의 SoC 및 융합부품 전문 컨퍼런스인 'IT-SoC 융합 컨퍼런스 2007' 행사가 오는 2007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COEX) 장보고홀에서, 국내 유일의 SoC 전시회인 IT-SoC Fair 2007(www.it-soc.org)과 동시에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Digital Convergence & Fusion Technology'를 주제로, 이동통신, 멀티미디어, 디지털컨슈머, 모바일TV, u-Sensor 등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37명의 국내외 연구소, 학계, 기업 최고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수백 여명 이상의 정보통신관련 종사자와 고급 정보를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1. 행사 개요

- 행사명 : IT-SoC 융합 컨퍼런스 2007
- 일 시 : 2007년 10월 25일(목)~26일(금) (2일간)
- 장 소 : COEX 장보고홀 331호, 333호, 335호
- 주 최 : 정보통신부
- 주 관 : IT-SoC협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발표 주제

- 이동통신
- u-Sensor
- Digital Consumer
- Mobile TV
- Foundry/IP
- Multimedia
- 무선데이터통신
- Test & Package
- 산업분석/전망

3. 프로그램

날짜	시간	장보고홀 331호	장보고홀 333호	장보고홀 335호
10/25 (목)	10:30 ~ 11:30	등록		
	11:30 ~ 12:20	Keynote Speech : Can We Survive? (신현중 부사장, 실리콘이미지)		
	14:00 ~ 14:40	Session 1 (이동통신) 좌장 : 방송찬 그룹장, ETRI	Session 2 (Multimedia) 좌장 : 이석중 부사장, 코아로직	Session 3 (u-Sensor) 좌장 : 장선호 기술역, IITA
	14:40 ~ 15:20	이동통신 시장 및 기술: 현황과 전망 (안재민 사업단장, IITA)	멀티미디어 SoC 기술 및 시장 전망 (최익수 상무, 엠텍비전)	스마트 센서기술 현황 및 전망 (민남기 교수, 고려대)
		이동통신 서비스 현황과 발전전망 (이준철 팀장, KTF)	MPEG기술 및 chip 시장 동향과 multi-standard video codec in hardware (윤진희 부사장, 칩스앤미디어)	나노테크의 바이오센서 응용 (김범준 교수, 동경대)

날짜	시간	장보고홀 331호	장보고홀 333호	장보고홀 335호
10/25 (목)	15:20 ~ 15:40	Coffee Break		
	15:40 ~ 16:20	차세대 이동통신용 SoC 개발방향 (김경호 상무, 삼성전자)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현을 위한 재구성 가능 프로세서 설계 기술 (최기영 교수, 서울대)	디지털헬스를 위한 센서 기술 (김희찬 교수, 서울대)
	16:20 ~ 17:00	300Mbps급 2x3 MIMO Modem chip 개발 (이석규팀장, ETRI)	3D graphic processor의 설계 동향 (박우찬 교수, 세종대)	모바일 RFID 서비스 모델 (윤진희 부장, SKT)
10/26 (금)	09:00 ~ 09:30	등록		
		Session 4 (무선데이터통신) 좌장 : 왕성호 사장, 레이디오포스	Session 5 (Digital Consumer) 좌장 : 엄낙웅 본부장, ETRI	Session 6 (Test & Package) 좌장 : 김정호 교수, KAIST
	09:30 ~ 10:10	RFID/USN 시범 사업의 동향 및 산업 적용 방안 (이재용 부장, CJ시스템즈)	IPTV시장 및 기술동향 (김영현 상무, KT)	Market and Technology Trend of System-In-Package (이춘홍 상무, Amkor)
	10:10 ~ 10:50	ZigBee 시장동향과 응용사례 (연승호 부장, KT)	무선 USB 플랫폼 기술 (허재두 팀장, ETRI)	3차원 시스템 집적 패키지를 위한 실리콘 관통 비아 (박준서 교수, KAIST)
	10:50 ~ 11:10	Coffee Break		
	11:10 ~ 11:50	UWB 시스템의 기술 및 시장 동향 (노재호 박사, 삼성전자)	휴대용 정보기기의 진화 - 비디오 게임 콘트롤러 (손진호 그룹장, LG전자)	Embedded Package Substrate for SIP (김 한 박사, 삼성전기)
	11:50 ~ 12:30	무선네트워크 모듈의 개발 방향 (문운한 부장, 삼성전기)	LBS 측위 기술 동향 (조성윤 박사, ETRI)	SoC TEST 기술 (김기영 부장, 테라다인)
		Session 7 (Mobile TV) 좌장 : 이윤식 본부장, KETI	Session 8 (산업분석/전망) 좌장 : 이민영 팀장, IT-SoC협회	Session 9 (Foundry/IP) 좌장 : 윤병진 센터장, ETRI SoC 산업진흥센터
	14:00 ~ 14:40	방통융합 시대의 모바일 방송 기술 발전 전망 (곽천섭 전문, KBS)	휴대폰 발전 방향 및 SoC (상두환 상무, LG전자)	ASIC/Foundry 사업 및 기술 전망 (서병호 상무, 삼성전기)
	14:40 ~ 15:20	이동통신(HSDPA/HSUPA)기반 모바일 방송 기술동향 (박지철 부장, 퀄컴)	New IT Trend (김경모 이사, 미래에셋)	Evolution of Fabless Industry in China (Henry Liu, SMIC)
	15:20 ~ 15:40	Coffee Break		
	15:40 ~ 16:20	모바일 TV용 Multi Mode SoC Solution (이도준 상무, 삼성전자)	인텔 투자전략 (한정수 전무, 인텔)	Analog IP의 동향과 설계 (이승훈 교수, 서강대)
16:20 ~ 17:00	모바일 TV용 Multi Band RF SoC Solution (김종식 부사장, FCI)	"Opportunity in New Designs ? If You Can Find It!" (Jordan Selburn, Director, iSuppli)	시스템 레벨에서의 ESD 내성 개선 방안: 3차원 ESD 스캐닝 시스템의 소개 (허윤중 사장, GTL)	

2007 IT-SoC Job Fai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oC산업진흥센터는 IT-SoC Fair 2007 부대행사의 하나로 IT-SoC전공인증과정 학생 대상 2007 IT-SoC Job Fair를 개최한다. IT-SoC전공인증과정은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을 위해 전국 각 대학과 연계하여 SoC석박사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20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2005년 11월을 시작으로 지난 6월 개최한 ITRC Forum 2007 IT-SoC Job Fair를 포함하여 4회째를 맞이하는 IT-SoC Job Fair는 전국 63개 대학 1,300여명의 IT-SoC전공인증과정 석박사 학생, 특히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참가기업은 하이닉스반도체, 코아로직 등 18개의 IT-SoC인력양성 후원기업에 한하여 채용면담의 기회가 주어진다.



1. IT-SoC Job Fair 개최 목적

- IT-SoC전공인증과정에 참여한 석박사 학생들에게 인력양성 후원기업과 채용면담을 주선하여 우수한 인력의 효과적 채용 지원
- IT-SoC 아카데미 양성인력과 산업체 채용 수요를 연계하여 SoC 인력 적재적소에 배치
- 궁극적으로는 IT-SoC Job Fair 개최를 위한 면담 부스를 설치하여 SoC아키텍트양성팀 과제 홍보

2. 일시·장소

- 2007년 10월 25~26일, 10시~17시, 코엑스 3층 장보고홀 입구

3. 참가대상

- 기업 : IT-SoC인력양성 후원기업(2007년 9월 현재 18개사)
- (주)코아로직, 엠텍비전(주), (주)씨앤에스테크놀로지, (주)티엘아이,

다들멀티미디어(주), (주)텔레칩스, (주)에프씨아이, (주)넥스트칩 8개사 참가 확정

- 학생 : IT-SoC 전공인증과정 석·박사 졸업(예정) 및 과정 중인 학생

4. IT-SoC Job Fair 참가기업 지원사항

- 현장면담 부스 및 필요사항 지원
- 참가기업 홍보자료 무상 제작 배포
- SoC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asic.net)를 활용한 인재정보 조회 권한 부여

5. IT-SoC Job Fair 진행 계획

- IT-SoC전공인증과정 학생이 참가기업에 한하여 면접 신청
- 참가 기업과 면접 신청 학생 일대일 매칭을 통한 면접일정표 수립 후 진행
- SoC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활용(www.asic.net)
- 인재정보검색 권한 부여 및 추가 면접희망자 지정(참가 기업)
- 참가기업 홍보자료 검색을 통해 연구 분야에 맞는 면접 신청(참가 학생)

6. 담당자: SoC산업진흥센터 김현주 기술원

(kimhj1@etri.re.kr, 02-3433-6036)

▶ IT-SoC 인력양성 후원기업 현황(18개사)

